

##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 '술렁'

원지사 어제 '청정제주 송악산 일대 발전 1호' 발표  
뉴오션타운 조성 등 송악산 일대 개발 사실상 불가  
사업자와 갈등·토지주 반발 따른 소송과 분쟁 불가피

'청정제주 송악산 일대 발전 1호'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추진과정에서 현재 송악산 일대서 진행중인 뉴오션 개발 사업과 충돌의 소송 문제와 토지주들의 반발, 문화재 지역 토지매입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제주 송악산 일대"를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

이해는 제주도가 현재 송악산 일대서 진행중인 뉴오션 개발사업을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뉴오션 개발사업은 중국 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3700억원을 투자해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

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개발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에 뉴오션 개발 사업자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소

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지정 이후 토지 매입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뉴오션 개발 사업 부지인 19만1950㎡ 규모의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토지 매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여부는 미지수다.

송악산 일대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찬반 여론에 따른 지역내 갈등 역시 우려되고 있다. 도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송악산 일대 주변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뉴오션 개발사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뉴오션 개발사업을 불허할 경우 지역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윤기자



원 지사가 2일 송악산 개발을 사실상 금지하는 '청정제주 송악산 일대 발전 1호'를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전면개방 방역수칙 준수 조건 4일부터 총 69개소

제주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4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지난 2월 24일 운영중단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15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4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도민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고려됐다.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설별로 전국기준 1인당 4㎡보다 강화된 1인당 8㎡ 확보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제, 방역관리자 지정, 입장객 명부 작성·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주기적으로 소독·환기 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40개소, 서귀포시 29개소 등 총 69개소의 도내 실내 공공체육 시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

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대본에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특히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되는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외에도 60대 확진자수, 병상 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등의 수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분류를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해 지자체별로 관리시설 및 방역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조정,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번주 중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거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방역위는 도 주관 행사의 개최 여부도 검토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주한 대사들 제주로...

### 제주포럼 외교관라운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를 포함한 9명의 주한 대사들이 제주포럼 외교관라운드를 위한 수질개선 및 오염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함양량과 지속이용 가능량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개발·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용수 공급체계 문제점 분석과 통합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수자원분야 전문가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내 최상의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주한대사들이 참여해 이목을 끌고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다자협력'의 주제로 개최되는 첫 번째 외교관라운드에 제주를 찾는다. 제주포럼 사무국은 이들 주한 대사들이 오는 6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다자협력'과 '팬데믹 대응과 교훈'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에 나누어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외교관라운드에이블에는 연례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해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동북아 정세

에 온건기자 eioh@ihalla.com

## 제주 전국최초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도, 제주형 기본계획 수립... "용수공급 개선 통해 물 복지 실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은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증가, 물을 많이 이용하는 특용작물이나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제주도의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178만7000㎥/일)이 91.2%에 육박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질 자원 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 용도별 개발·공급 이원화로 감수량 부족과 가뭄 시

중산간 지역 제한급수 및 해안지역의 해수 침투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용도별 용수공급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22년 10월까지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해 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 대체 수자

원 활용 확대와 수자원 배분·이용원칙 정립,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및 오염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함양량과 지속이용 가능량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개발·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용수 공급체계 문제점 분석과 통합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수자원분야 전문가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내 최상의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시행 주식회사 열우

시공 주식회사 포엠

Nobhill HOUSE JEONGSIL

## 의리인의 선택은? "노브힐하우스"

### 노브힐 하우스 정실 1차, 2차

민으로, 한리수목원이 근접해 있어 친환경 웰빙 주거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숲세권에 연동인프라, 도서관, 아트센터,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문화생활의 최적지!  
연복로와 애조로를 끼고 있어 제주 시내 어느 곳이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전 세대 남향배치 / 4 Bay 구조 / 천정고 2.4m / 세대당 2대 주차

인부 테라스 / 이견창호 / 스마트홈 네트워크  
삼성 시스템에어컨 4대, 오븐레인지, 김치냉장고 빌트인 / 주방 팬트리 수납장, 스테인리스 아일랜드 싱크

125m<sup>2</sup>(구38평형) 32세대 분양!! 모델하우스 11월 6일 OPEN!

노브힐이 아껴둔 자리!

문의

010.2650.0576

010.3690.2828